



문서번호 : 25-07-여성위-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제 목 : [여성위][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2025. 7. 24.(목)

전송매수 : 총 3 매

[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새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다. 그 결과 성평등 정책은 퇴행을 거듭했고,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더욱 취약해졌다. 새 정부는 이러한 퇴행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앞으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권과 인권의 옹호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를 실현할 의지와 역량 또한 필요하다.

인사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인선 문제로 주권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실현할 자질과 역량은 물론 리더십을 갖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은 이 정부가 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시금석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빛의 혁명’의 주역들과 함께 광장의 명령에 제대로 응답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디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와가치,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 117개 단체, 가나다순)